

## 日本 大阪 美術館의 李朝舍利塔

黃 壽 永

本紙二卷五號에 李弘植氏에 의하여 東京 根津美術館의 高麗八角浮屠一基가 紹介된 바 있거니와 筆者는 一九五八年 六月 大阪市立美術館前庭에서 塔身과 石欄이 完存할 뿐 아니라 塔碑가 具備되어 있는 李朝舍利塔 一基를 發見하고 놀란 바 있었다. 더욱이 注目한 바는 樣式이나 規模가 京畿道 楊州郡 檜岩寺址 北崗에 現存하는 三祖師塔中 最南端에 位置하는 無學祖師浮屠(國寶)와 恰似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塔婆는 하나의 典型作品이 建立되어 時代樣式이 定型될 때에는 그를 模하는 同系作品이 後代에 經營되었다는 實例를 이 곳에서 確認할 수도 있었다.



이 塔의 搬出時期와 經緯 等은 正確히 알 수 없으나 記錄에 ① 의하면 日帝時 韓國에서 活躍하던 神戶居住의 辯護士 日人某가 戰前에 上記 美術館에 寄託한 後 今日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連絡조차 없어 無主物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筆者는 그 後 이 塔에 關한 知見을 管理當局者에게 問議한 바도 있었으나 아직

回報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寫眞과 碑文만으로서 간단히 紹介한다.

樣式은 新羅以來의 八角圓堂型을 基本으로 삼았다. 上下蓮花台石이 있고 그 사이에 八角竿柱가 끼여 있어 基壇部를 이루었으며 그 위에 圓球形塔身이 安置되었는데 이 塔身을 돌아서 雲龍文이 彫刻되었다. 다시 그 위에는 八角形屋蓋石과 塔頂에는 相輪과 寶珠가 重疊되었다. 다음에 塔周에는 八角을 이루는 石欄干이 둘러 있는데 그 樣式은 當代의 石橋等에서 보는 바와 同一하며 특히 上學한 檜岩寺址塔의 것과 酷似한 바 있는데 後者가 補修作品임에 比하여 이 塔의 것은 原形을 담고 있음은 多幸이었다. 이 같은 兩塔의 類似點은 塔身이나 石欄에만 그칠뿐 아니라 各部의 彫飾手法에서도 指摘되는 바인데 建造年代에 있어서 檜岩寺址塔이 先行함은 ② 碑文에 의하여 明白하다. 그러므로 이 塔은 檜岩寺址塔을 祖型으로 삼고 그를 忠實하게 模한 作品이라 하겠는데 兩塔間의 年差는 規模의 縮少와 相應되 變化된 彫法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日本에 搬出된 後 새로이 建立된 塔碑의 各面에는 다음과 같이 記刻되어 있어 이 塔이 萬曆四十八年(一六二〇A.D.)에 天磨山 奉印寺에 建立되었으며 그 後 乾隆二十四年(一七五九A.D.)에 重修立碑된 事實과 關聯된 僧俗名을 알 수 있다. 碑表의 塔中古文은 解體時에 發見된 것으로 짐작된다. ③

〔表面〕 西天國佛舍利記 塔中古文

萋葫蘆內舍利一顆形若粟粒出于小西天國活佛顛門頂上五百歲後換墜一珠人仰之則享齡增福祿去邪魔育子孫遵爲佛之驗者每常以香燈待之爲靈觀則以此盒盛托宜仔細萬曆四十七年己未之憂日中華來于此土越明年庚申五月十四日 上命禮官送于天磨山奉印寺東二百許建塔營堂禮畢書

〔裏面〕 世尊舍利塔重修記(以上不明) 折衝 崔世換書

釋尊示寂之後金銀銅石之塔某布諸天福祐世眞身不滅聖燭猶存在昔朝家命禮官建塔於此香燈奉之者豈偶然哉噫歲既深久寫塔傾圮石欄摧敗林斷澗愧者久矣 乾二十一年丙子五月十四日 楓巖子取愚來自金剛見之慨然重葺立碑永鎮小門 乾二十四年己卯七月 日立

〔右側面〕 曠曠自家李氏 尙宮庚辰生李氏

上(不明)殿下聖壽萬歲 尙宮己丑生 朴氏 和緩翁主 李氏 尙宮 戊子生 安氏

[左側面] 舍堂妙暹 崔弼煥 刻字 元梓佑 別座 (以下不明)

舍堂法眞 崔斗煥 石手 李億金(以下不明)

金壽錫 金俊奧 供養(以下不明) 重修山人(以下不明)

金龜錫 處士法倫 處士法惠 立牌山人(以下不明)

註

① 村松寬「美術館散步」二〇頁

② 無學浮屠의 建立은 李太祖六年 (一三九七 A. D.)六月이다。(太祖實錄 一一·一下)

③ 碑文은 駐日代表部大阪出張所의 配慮에 의하였다.

### 陝川 靈巖寺址와 그 遺物

朴 敬 源

一九五七年 여름에 陝川郡 佳會面 事務所에서 新羅統一期の 優秀한 雙獅子石燈 一基를 發見하였을 때 그 原所在地가 同面內 靈巖寺址임이 밝혀졌으나 그 곳까지의 거리가 八km가 넘고 또 交通이 極히 不便한山中이므로 調査를 斷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이 石燈은 國寶로 指定되는 同時에 이왕 元位置에서 遊離된 遺物이니 釜山에 移建하기로 되어서 慶尙南道當局에서는 筆者에게 石燈移建에 따른 實地調査를 依頼해 왔는 것이다.

때마침 三嘉(陝川郡)——居昌間의 新設道路가 本寺址 附近까지 開通하였으므로 一九五九年 一月二五일에 本寺址를 처음 訪問하고 極히 注目할만한 遺蹟임을 指摘한 바 있었던 것이다.

慶尙南道 當局의 移建計劃은 最後의 實踐段階에 들어가서 現地 住民들의 猛烈한 反對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次에 一九五九年 봄에

第二卷 第十號 通卷十五號

는 面民들이 本寺址에 庵子를 新築하고 王前記 石燈을 原位에 移建하였다는 消息을 듣고 同年八月二十九日에 再次 本寺址를 찾아서 寺址의 測量과 大略의 調査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調査는 筆者가 海外旅行에 出發하는 數日前的 匆忙中 短時間에 寺址의 測量을 爲主하여 殘存遺物의 位置를 圖面上에 記錄하는

作業에 그치고 遺物 하나 하나의 細密한 調査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여서 그 結果의 發表를 保留하고 있는 中인데 黃壽永氏로부터 調査된 資料만이라도 一旦 紹介하라는 再三부탁에 우선 本寺址의 簡略한 輪廓만을 적어 보기로 하였다.

#### 一、遺蹟(圖面參照)

##### ① 建物址(前葉上段)

排水口石과 石製 楔石(後述)을 넣어서 쌓인 石築臺 위에 建物の 礎石 일부가 남아 있다. 처음에 여기를 山門址로 생각했었는데 아래로 遺物이 있는 는 두렇고 같은 石築으로 되어 있어서 山門은 좀더 前方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鐘閣 같은 建物이라도 있었던 곳인가 한다.

##### ② 建物址

法堂에 對하여 正面한 正向建物の 礎石 일부가 露出되어 있고 埋沒된

